

권중달통감학장학회 대총회에 자치통감 애장본 기증



권오상 사무총장, 권중달 교수, 권영창 회장, 정철재 이사장, 권행완 편집국장(왼쪽부터)

권중달통감학장학회(이사장 정철재)는 7월 20일 오전 11시 대총회를 방문하여 권영창 회장과 자치통감의 역자인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철재 권중달통감학장학회 이사장, 김덕환 권중달통감학장학회 이사,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순용 청장년중흥위원회 상임부회장, 권영일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 자치통감 애장본 28권의 기증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창 회장은 자치통감 세계 최고 권위자로서 동아시아의 1,36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대단한 책을 직접 번역하고 주석을 단 자치통감을 대총회에 기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에 권중달 교수는 자치통감을 완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여러 보직을 역임하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을 하고 끝낸 1995년은 정년을 10년 남긴 시점이었다. 그때 학자로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다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자치통감이었기에 이것을 역주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치통감은 전체가 294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이라 10년 정도 역주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번역이라면 누구에도 뒤지지 싫어하는 일본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내가 이를 완성하여 문화적으로 그들보다 한 발 앞서고 싶었고, 중국 사람들보다 더 멋진 주석을 달아 끝내고 싶은 학문적 욕심이 있었다.

또 이 작업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렵고 험난한 작업인 것을 알았지만 이 책이 우리민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우리를 둘러싼 이른바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를 극복하며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인제는 자치통감을 통하여 길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은 그동안 자치통감에서 위대한 지혜를 찾아냈던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사례를 꼽는다면, 몽골족 쿠빌라이가 중원지역을 정벌하고 원(元)나라를 세운 것이었다. 이때 쿠빌라이는 전장(戰場)에서도 틈틈이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세계경영을 꿈꾸어 왔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지혜의 보고(寶庫)가 자치통감이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되는 세종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안일이 날 정도로 수시로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명신들과 함께 스스로 훈의(訓義)를 저작하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이 책을 모든 지도층에게 읽히려고 거의 1천 질(帙)을 인쇄하였다.

당시에는 이 정도 분량을 인쇄할 종이를 준비하려고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를 각처에 나누어 만들게 하되, 5만 권은 조지소(造紙所)에서 만들고, 10만 5천 권은 경상도에서, 7만 8천 권은 전라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에서,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세종 16년 7월 17일자)고 명령했던 내용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다. 이처럼 세종은 국력을 기울여 이 책을 보급하였고 그 덕택에 많은 관원들이 이 책을 옆에 두고 읽으며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그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 나온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100여년 분열로 혼란하였던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른바 대장정기간에 도망을 다니면서도 반드시 자치통감을 지녔으며 무려 17번이나 읽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그의 중국 통일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자치통감에서 나왔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중달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누군가가 자치통감을 읽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난제를 푸는 지혜를 그 속에서 찾아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작업에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한 나라를 경영할 사람에게는 물론이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도 이 책은 무한한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실례는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회장이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그가 성공한 배경이 된 지혜는 자치통감을 읽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 SBS에서 방영된 대하사극 연개소문도 이환경 작가가 자치통감을 읽고 집필한 예를 들어 문학, 영화, 드라마 등 예술분야에서도 영감(靈感)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이 자동차를 1년 동안 미국에 수출하여 얻은 수출액은 헐리우드에서 만든 미국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액수와 맞먹는다는 실례를 들며, 점차 우리 인재들의 예술적 재능은 자치통감이라는 무한한 보고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 책의 역주작업을 하는 더 큰 목적은 자치통감 속에 감춰진 높은 학문적 수준이 예컨대 주자학처럼 하나의 학문체계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통감학'장학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창 회장은 대총회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대총회를 경영 차원에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포부를 피력하였다. 그러자 권중달교수는 그 자리에서 애장본 자치통감 제1권에 “자치통감이 대총회를 경영하는 발전의 자료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祈資治通鑑爲經營宗親發展之資(기차지통감유경영종친발전지자)”라고 일필휘지 서명하여 주었다.

이어서 자치통감 애장본 기증식을 거행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대총회에서는 자치통감을 기증한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정철재 권중달통감학장학회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정철재 이사장은 자치통감은 앞으로 활동력이 왕성한 20대, 30대가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학회를 출범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정철재 이사장은 그동안 금니(金泥)사경의 전문가(專門家)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모두 애장본 자치통감을 제작하는데 쏟아붓기로 제공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니사경 전문가가 되는 기이한 일화(逸話)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가 서예를 공부하던 1994년에 기이하게도 어느 분이 백두산 탐방을 갔다가 북한작가가 그린 민생도(民生圖) 8폭을 사왔고, 그 민생도 뒷면에 금니(金泥) 금강경을 붙여 8폭 병풍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철재 이사장에게 이를 의뢰했던 데서 시작했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에 금니(金泥) 사경을 한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이 병풍에는 남북이 통일되는 염원을 담고 있어서 서예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정성과 마음으로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받았기에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 남북 통일이란 거대한 염원은 그만두고, 다만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두루마기를 하나 지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금니 금강경을 썼다고 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금니금강경은 정성스럽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8폭의 금강경병풍을 금니로 쓰고 제작해 준 것이 어느덧 50번째가 되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니 금강경을 쓰기 시작한지 30년 동안 애초에 금니금강경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것이 생각나서 39번째 금니금강경은 청와대로 본일 인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화는 정철재 이사장의 수필집 ‘그대 마음이구만!’(SH Books)에 실려 있다.

금년은 두 분의 결혼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지난해에 49번째 금니 금강경을 부탁한 분이 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애장본 자치통감을 제작하는데 쓰라고 얼마간 기탁한 것을 계기로 이제 남은 생을 후학과 후손들을 위하여 봉사할 마음으로 애장본을 제작하였고 그 판매 수익금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권중달 교수는 현재 자치통감을 이어서 ‘속자치통감’ 220권의 역주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0권을 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이 완간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403년에서 1368년까지 총 1,771년간의 대역사작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한다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문화업적이 우리 권문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또 정철재 이사장은 이번 출간된 애장본 자치통감의 책제(冊題)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지극정성을 다해 손수 금니(金泥)로 쓰면서 권중달통감학 장학회를 통하여 ‘통감학’이라는 또 하나의 학문이 탄생할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창 회장은 ‘이사장님 뜻이 마음에 와 닿는다. 존중한다.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중보에서 자치통감을 시리즈로 게재하여 이사장님 뜻도 전달하고 이와 함께 자치통감도 널리 보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면 의미가 더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 권중달통감학장학회를 통해 자치통감이 널리 보급되어 안동권문에서 국가를 흥흥시키는 지도자가 배출되고 통감학 후학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원한다. 명나라 말 사상가 황종희(黃宗羲, 1610~1695)는 스러져가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을 지었다. 권중달 교수는 수년 전부터 연구실 이름을 황종희의 명이대방록에서 따와 대방제(待訪齋)라고 지었다. 자치통감 세계 최고 권위자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권행완 편집국장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7>

유회당집(有懷堂集)



권감현 편집위원장

〈유회당집〉은 이조판서를 지낸 권이진(權以鎭, 1668~1734) 공의 시문집(詩文集)으로 12권 6책으로 마지막 권12는 부록이다.

공은 안동권씨 26세(世)로 추밀공파(樞密公派)이다. 자(字)는 자정(子定), 호(號)는 유회당·수만헌(收漫軒)·구시재(求是齋)·불기재(不欺齋)이고 시호(諡號) 공민(恭敏)이다. 공주(公州) 유성(儒城) 탄방리(炭坊里) 출신으로

로 예조좌랑을 지낸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 1570~1622)의 증손으로, 조부는 탄옹(炭翁) 권시(權詵, 1604~1672), 부친은 현감 권유(權維, 1625~1684), 모친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따님이다. 스승은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이며, 교유한 인물은 이주천(李柱天, 1662~1711), 홍영(洪瑛), 홍만우(洪萬遇, 1671~1722), 송유전(宋儒傳) 등이다.

공은 26세인 1693년 3월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1세 1월에 설서(說書)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일생 동안 수많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32세 6월에 함평(咸平) 현감, 34세 11월에 사서(司書), 36세 1월에 지평(持平), 같은 해 2월에 전라도사(全羅道使)가 되었다.

39세 5월에 정언(正言), 8월에 부수찬(副修撰), 41세 4월에 무장(茂長) 현감이 되고 1월에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되었다.

44세 6월에 부승지가 되고 10월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으며, 45세 5월에는 증조부 권득기(權得己)의 문집 〈만회집(晩悔集)〉을 간행하고, 7월에 〈동경잡기간오(東京雜記刊誤)〉를 저술하였다.

47세 1714년에 영광(靈光)군수가 되고, 48세 봄에 서재(書齋)인 여경암(餘慶菴)과 거업재(居業齋)를 세웠다. 51세 4월에 안동부사(安東府使)가 되고, 52세 8월에 청량산(淸山)을 유람하였다. 54세 5월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7월에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었다.

55세 7월에 예조참의가 되고 9월에 함흥(咸興)의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에 사초(莎草)하고 귀오에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56세 1월에 승지(承旨)가 되고 8월에 관결사(判決事)가 되었으며 10월에 평안도 병마도사가 되고 12월에 형조(刑曹) 참판이 되었다.

57세 2월에 호조(戶曹) 참판이 되고, 3월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갔으며 〈연행일기(燕行日記)〉를 짓고 7월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60세 7월에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8월에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10월에 호조 판서가 되었다. 61세 7월에 분부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책훈(策勳)되고 62세 12월에 우참찬(右參贊)이 되었으며 64세 4월에 공조 판서가 되고 66세 1월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67세 5월에 파직되었다가 부제학 이종성(李宗城)의 도움으로 직절을 돌려받았다. 11월 6일에 무수동에서 졸하였다. 1772년 6월에 공민(恭敏)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한편, 공의 시문(詩文)은 〈수만헌집(收漫軒集)〉이라는 제목으로 초고본(草稿本) 11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공의 둘째아들인 회와(悔菴) 권정징(權靜徵, 1697~1758)이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에게 공의 묘지명을 받는 한편 공의 시문을 정리해두었다. 그 뒤 공의 문집이 〈유회당집(有懷堂集)〉이라는 이름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그 후 1917년에 공의 증조부 권득기(權得己)와 조부 권시(權詵)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693년 대전(大田)에 설립된 도산서원(道山書院)에서 목판 초간본을 공의 증조부 권득기(權得己)의 〈만회집(晩悔集)〉, 공의 조부 권시(權詵)의 〈탄옹집〉과 함께 인쇄하였는데, 이듬해 시조 문집 면 끝에 “정사증동중간(丁巳仲冬重刊: 1917년 음력 11월에 거듭 간행하다)”이라는 동일한 글씨가 찍혀 있다. 지난 2006년에 유회당파(有懷堂派) 증중(宗中)에서 〈유회당집〉, 〈유회당연보〉, 〈동경잡기간오(東京雜記刊誤)〉 등을 합하여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유회당집〉의 권1-2는 시(詩, 251제목)로, 저술 순서로 편집되어 있다. 권3-4는 소(疏, 39)로, 사직소(辭職疏)가 대부분이다. 권5-6은 장계(狀啓, 18), 의(議, 3)이다. 권7은 서(書, 9), 서(序, 10), 기(記, 10)이다. 권8는 기(記, 2), 제발(題跋, 8)이다. 권9는 비(碑, 1), 묘갈명(墓碣銘, 8), 묘지명(墓誌銘, 5)이다. 권10은 묘표(墓表, 8), 행장(行狀, 2), 행록(行錄, 2)이다. 권11은 축문(祝文, 15), 제문(祭文, 13), 전(傳, 1), 잠(箴, 2), 불윤비담(不允批答, 1), 전(箋, 4), 잡저(雜著, 4)이다. 권12는 부록으로 남태제(南泰齊, 1699~1776)가 1735년에 지은 치제문(致祭文), 1748년경에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이 지은 묘갈명, 이익(李瀾)이 지은 묘지명(墓誌銘), 체계공(蔡濟恭, 1720~1799)이 1772년에 지은 시장(諡狀)이 실려 있다.

다음 시(詩)는 공이 15세 때인 1682년에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집 〈포은집(圃隱集)〉을 읽고 지은 것이다.

圃隱先生百世師(포은선생백세사)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는 백세의 스승이신데
 殘篇校過使人悲(잔편교과사인비)
 남긴시 시문 읽어보니 내 마음 슬프게 하네
 伯夷不語周王聖(백이불어주왕성)
 백이숙제는 주나라왕 성인이라 하지 않았고
 諸葛寧知漢祚移(제갈녕지한조이)
 제갈공명은 촉한 국인이 바빌 줄 알았으랴
 泮水菁莪皆北面(반수청아개북면)
 반수와 청아는 모두 북으로 얼굴 향했는데
 七陵松柏並南枝(칠릉송백병남지)
 칠릉의 소나무 잣나무 남으로 가지 뻗었네
 遺真千載起余敬(유진천재기여경)
 영정은 천년토록 나에게 공경심 일깨 하니
 髣髴當季憂國眉(방불당년우국미)
 당시 나라 걱정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시는 공이 포은의 문집을 읽고 영정(影幀)을 보며 포은의 절개(節概)를 가슴 깊이 새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수(泮水)와 청아(菁莪)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음 시는 21세 때인 1688년에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윤돈(尹焞, 1071~1142)의 시를 차용하여 회포를 말한 것이다.

聞道南山桂樹交(문도남산계수교)
 듣건대 남산의 계수나무들 서로 사귀다 하니
 此間欲寄數椽茅(자간욕기수연모)
 이 사이에 두세 칸 초가집 지어 살고 싶구나
 達人未有開青眼(봉인미유개청안)
 사람을 만나도 정다운 눈길 보내주지 아니하고
 處世應無守白嘲(처세응무수백조)
 세상을 살아가며 응당 조롱을 지키면 안 되네
 池水春晴調鶴羽(지수춘청조학우)
 맑게 갠 봄날 못의 물은 학의 깃과 어울리고
 園林風暖護梅梢(원림풍온호매초)
 정원수 풀 바람 따뜻해 매화나무 끝 보호하네
 塵中富貴非願(진중부귀양비원)
 세속의 부귀는 정말로 내 바라는 것이 아니고
 且向陶盆養飯抄(차향도분맥만초)
 질할아리 속 공보리밥이나 먹으며 살고 싶네

이 시에서 공은 평생을 청빈(淸貧)하게 살아가길 굳게 다짐하고 있다. 송나라 주희(朱熹)도 〈조은소(招隱操)〉에서 “남산의 계수나무에 가을이 오니, 바람 구름이 어둑하네. 그 아래 가난한 늙은이 살고 있어, 나무 열매 먹고 시냇물 마시며 계절 가는 줄도 모르네”라고 하였다.

다음은 22세 때인 1689년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南人)이 득세(得勢)하던 봄에 외조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남쪽으로 유배를 가는 길을 따라가서 강진(康津)의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에서 지내며 제주섬을 바라보며 느낀 감을 읊은 것이다.

行盡江南數十程(행진강남수십정)
 강남 땅 끝까지 머나먼 길을 달려왔으니
 黏天波浪作雷霆(점천파랑작뢰경)
 하늘 맞닿아 물결소리가 천둥소리 같도다
 試登萬德山頭望(시등만덕산두망)
 만덕산 꼭대기에 올라 멀리 바라보노라니
 雲外耽羅一點靑(운외담라일점청)
 저 멀리 구름 바깥 제주섬 파란 한 점이네
 우암은 1698년 2월 24일에 강진(江津)의 만덕산(滿德山) 백련사(白蓮寺)에 도착하고, 1698년 3월 7일에 유배지인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아래 시는 공의 이모부 윤돈(尹焞, 1628~1675)의 아들인 윤주교(尹周교)에게 지어 준 것으로, 원주(原註)에 “윤주교가 만덕사에서 외조부 송시열을 만나 뵈고 작별할 때 외조부께서 훈계를 주시기에 밖에 나가서 함께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先生已被巫陽召(선생이피무양소)
 선생은 이미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았는데
 海上一言尚炳然(해상일언상병연)
 바다 위에서 하신 말씀 지금도 뚜렷하네
 今日與君垂淚讀(금일여군수루독)
 오늘 자네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읽어보니
 悠悠萬事只蒼天(유유만사지창천)
 아득한 온갖 일들 오직 저 하늘 같대 했네

젊은 두 이종사촌 형제는 83세의 대로(大老) 외조부 송시열의 가르침인 “아득한 온갖 일들 오직 저 하늘과 같다”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암은 1689년 6월 3일 정읍(井邑)에서 사약(賜藥)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 속보 |

시조 태사공이 불던 옥피리를 찾아서... 제1탄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아침 5시 40분 미국 시카고에서 존 권(John Kwon, 추밀공파) 축친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사는 존 권씨가 부인과 함께 북아메리카 시카고 박물관을 방문해 시조 태사공이 불던 옥피리가 있는지 찾았다는 얘기가 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이다. 시카고는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박물관의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주차를 못할 정도로 찾아오는 방문객도 많아 1년에 방문객이 30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큰 시카고 박물관을 아침부터 구석구석 뒤지다 중국관에 갔더니 청나라 때 만든 옥피리 한 쌍, 즉 쌍피리를 전시하고 있더라.

그 옥피리를 보고 지난 4월 시카고에 가면 꼭 박물관에 가서 시조 태사공이 불던 옥피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권행완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존 권씨가 한국에 왔던 그때 마침 4월 중보(574호 6면)에 권오신 좌윤공파회장이 “시조 태사공이 불었던 옥적(玉笛)은 미국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는 칼럼을 쓴 바 있어서 미국에 돌아가서 시카고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시카고 박물관에 들러 옥피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당시 존 권씨는 부인과 함께 20여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여 미국에서도 안동권씨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터라 대총회를 방문하여 족보를 확인하고 시조 태사공 훈장제가 봉행된다는 소식에 바쁜 일정도 조정해가면서까지 훈장제에 참석했었다.

이렇게 송조사상과 애국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시조 태사공 옥피리를 찾아야 한다는 편집국장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시카고에 가지마자 부인과 함께 박물관까지 방문하여 옥피리를 찾았더라는 것이다. 비록 옥피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시조 태사공의 옥피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정성과 뜨거운 열정은 100만 축친을 감동시키고도 남을만하다. 후손으로서 이 일에 적극 동참한 존 권씨의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마울 뿐이다.

존 권씨는 이외에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등 전 미국을 아우르는 안동권씨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은 향후 미국에 거주하는 축친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후세들이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살짝 귀띔했다.



부인과 함께 시조 옥피리를 찾아서

권오신 회장은 “구전에 의하면 옥피리는 6.25 이전까지는 태사묘에 보관하고 있어서 훈주항제 때 피리를 본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1980년대 중반 대구중흥회가 주관한 보화강좌에서 “시카고에 양자로 간 대구 출신 권 목사라는 분이 시카고에서 ‘안동권씨 시조 권행이 불었던 피리’라는 설명이 기재된 옥피리를 보았다는 증언도 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옥피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할만하다”고 말했다.



존 권, 박물관 앞에서

청나라(1644~1911) 옥피리

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문화재 반환단체의 도움을 얻어 소장 유물을 추적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반환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총회에서는 존 권씨와 함께 앞으로도 시조 태사공이 불던 옥피리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기다린다.

권행완 편집국장